

“MB, 인천공항 장부가 헐값 매각 시도”

정동영 의원, “토지가 20배 이상 축소·건물가 아파트 건축비보다 싸… 매각하려던 책임자들 아직 요직에”

연간 이용객 6,000만명인 세계적인 공항, 보유토지 가치만 50조가 넘는 세계1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산 장부가가 실거래가와 비교해 최소 20배 이상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가 제출한 ‘토지 보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24일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인천공항공사가 보유한 토지는 총 1,700만평(여의도 면적의 20배) 규모이며, 현재 장부가격은 총 2조 8,000억원으로 평당 17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적용 시 총 12조 3,000억원, 평당 74

만원인 것으로 분석되어 현재 장부가격과 단순 비교하면 4.4배 차이이다.

또한 현재 인천공항이 위치한 인천 중구 운서동 인근 토지가 평당 최저 34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 수준으로 실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자산 장부가는 최소 20배 이상 축소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호텔, 오피스텔, 상업시설, 카지노 리조트 등이 들어서는 골프장 건설 예정인 BC-1지역의 경우, 평당 17만원이었고, 오피스텔이 평당 8만 4,000원으로 평가되어 있는 곳도 있었다. 같은 부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총 900억원, 평당 114만원이다.

정동영 의원은 “인천공항은 12년 연속 세계 1등 공항이고, 2016년 순이익만 1조 원 가까이 된다. 게다가 현재 보유한 토지의 가치만 5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런데 현재 장부에는 20분의 1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축소된 장부가격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는 황금알을 낳는 공기업을 말도 안 되는 헐값에 매각하려 했었다”고 지적하면서 “연간 6,000만명이 오고가는 인천공항 주변 호텔·리조트 부지가 평당 17만원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건물 또한 저평가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여객터미널·각종 편의시설 등 공사가 보유한 총

40만평 규모의 건물의 가격은 평당 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아파트 건축비보다 싼 것이다.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아파트 건축비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기본형건축비도 평당 610만원”이라며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등 공항 건물이 아파트 건축비보다 싸다면 누가 믿겠나”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또 “이렇게 저평가된 장부가격보다도 더 싼 값에 인천공항을 매각하려 했던 책임자들이 아직도 정부나 기관의 의사결정을 하는 요직에 남아있을 것이다”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시민 의견 반영되는 생활정치 구현”

채정룡 민주당 군산시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채정룡 군산지역위원장(사진)이 24일 군산시청 기자실을 방문,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생활정치를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 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조직을 정비해 ‘군산시민과 함께 하는 민주당’,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민주당’을 건설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로운 정치적 활력을 불어넣어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현안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전북도와 군산시, 정치권과 정부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면서 “집권당과 함께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힘 있는 위원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채 위원장은 “지난 2년여 간 군산지역위원회는 위원장의 공백으로 인해 구심점을 잃고 조직이 흩어져 지역 현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며 “사고지역이라는 멍에를 안고 있던 지역위원회의 권위와 자기 몫을 찾지 못한 군산지역위원회의 위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당원과 시민들의 성원과 격려를 당부했다.

채 위원장은 제6대 국립 군산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김진성 기자

국회 교문위 전북도교육청 국감 ‘성희롱 의혹 교사 자살’… 김 교육감 못매

교사 성추행 사건·교사 자살사건 등으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집중 추궁을 당했다.

24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북도교육청·광주교육청·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각 시도교육청의 주요 쟁점 사안을 언급하며 질타했다.

이 가운데 의원들의 질의는 단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쏟아졌는데, 교사 성추행 사건과 교사 자살사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비례대표)은 “교사 자살사건과 관련해 유가족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며 “한 분의 목숨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잃었는데 자살까지 이르게 된 사안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의 대응 태도와 인권센터의 조사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도 “최초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의 진술을 보면 ‘추행’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며 “경찰에서도 내사종결을 했다는 것은 사건으로 삼을 가치조차 없던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비례대표)도 “성희롱 의혹을 받은 교사가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국 자살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고, 유가족들이 조사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모든 것을 메뉴얼대로 했다, 절차대로 했다 등 영부새처럼 말을 했는데 검토를 해보니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24일 전북·광주·전남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전북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의원 질타에 반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은 “지난 2015년부터 교사 성추행이 계속됐는데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었다”며 “이거는 교사의 성추행이 아닌 교육청의 직무유기, 직무태만이고 교육청과 학교의 성추행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를 안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하는 만큼 해당 학교 담당인 장학관도 징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김병욱 의원, 도교육청 국감서 “전북 열흘 이상 무단 결석 439명”

전북지역에서 열흘 이상 무단 결석한 학생이 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장기결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열흘 이상 무단 결석한 학생은 전국적으로 1만6,928명이다.

이 가운데 도내에서는 439명이 열흘 이상 무단 결석했고, 무단 결석한 학생 가운데 학교 복귀한 학생은 145명에 불과하다.

학교급별로 무단 결석 현황을 보면 초등학생 133명, 중학생 158명, 고등학생 148명 등이며 학교로 복귀한 학생은 각각 31명과 35명, 79명이다. /뉴시스

작년 간염 진료환자 42만명, 최근 3년간 10.5% 증가

지나해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집단 C형간염 감염 사건 및 최근 유럽산 수입 가공육에서 E형 간염 유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간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6년 간염 진료환자가 41만 9,000명으로 최근 3년간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감염병 관리체계의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3년간 A형·B형·C형·E형간염으로 진료 받은 총 환자는 2014년 379,201명, 2015년 374,881명, 2016년 419,024명이었고 최근 3년간 진료환자가 10.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먼저 2016년 A형간염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6,806명으로 2014년 6,222명에 비해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형간염 진료환자는 2014년 328,585명에 비해 33,997명이 늘어난 362,582명으로 10.3% 증가했다. C형간염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49,569명으로 2014년 44,342명보다 11.8% 증가하였고, E형간염 진료환자는 67명으로 2014년 52명인 것과 비교해 28.8% 증가했다.

간염 진료환자를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면, A형간염 진료환자의 경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연령층은 40대(2014년 1,221명 → 2016년 1,575명)가 29.0% 증가율을 보였고, B형간염 진료환자는 43.8%의 증가율을 보인 80세 이상(2014년 1,551명 → 2016년 2,231명) 연령대였다.

김광수 의원은 “간염 질환의 환자 수가 최근 10%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OECD 국가 중 간암 사망률 1위인 우리나라의 간암 환자 상당수가 만성 B형·C형간염에서 악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최초 투자기업
세계적인 폴리실리콘 공장 운영
전북지역 100MW 태양광발전소 건설
전북도 내 30개 초등학교에 태양광설비 기증

OCI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대표기업이 되겠습니다

세계 경제 허브 새만금산업단지의 열병합발전소 건설 현장

Global Leading Green Energy and Chemical Company OCI